

---

第97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保健社會委員會會議錄 第5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7年9月4日(木) 午後3時

場所 保健社會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地域別保育施設實態에關한議政活動의件
  2.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審査된案件

1. 地域別保育施設實態에關한議政活動의件 ... 2面
  2.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3面
- 

(15時 35分 開議)

○委員長 朴贊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特別市議會 제97회 임시회중 제5차 保健社會委員會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지역구 의정활동도 바쁘실텐데 쉴 틈 없이 서울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시議會的 위상정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委員長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는 헛됨이 없이 우리 나라가 21세기에 복지선진국으로 들어서는데 밀거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

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협조하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1. 地域別保育施設實態에關한議政活動의件

(15時 37分)

○委員長 朴贊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별 보육시설 실태에 관한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지난 회기 때 서울시 보육업무에 관한 종합보고를 통해서 서울시 보육시설 활성화의 시급성을 우리 모두 공감한 바 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委員 여러분의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가지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보육시설에 관한 의정활동의 건을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의정활동계획

(뒤에 실음)  
.....

○委員長 朴贊秀;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유인물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의정활동 실시 후 반드시 활동보고서를 이번 회  
기중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서  
울特別市長 提出)

(15時 39分)

○委員長 朴贊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女性發  
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家庭福祉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家庭福祉局長이 서울特別市女性發展  
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  
겠습니다.

존경하는 朴贊秀 委員長님, 그리고 保健社會委員會 여러 委  
員님들, 항상 家庭福祉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  
시는 委員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될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  
條例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를 다  
른 시·도의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하여 재정자립도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금년말에 개소 예정인 서부여성발전센터에  
설치될 수영장 운영에 따른 수영수강료 징수를 위하여 조례  
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발전센터 이용에 따른 기술  
교육과 생활문화교실 수강료는 1인 월 7,000원에서 8,000원  
으로, 아동보육료는 1인 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수영장 수강료를 1인 월 4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사용  
료가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술교육 수강자 중에서 생활보

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7등급 이하의 모자가정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혜택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委員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용료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여성발전센터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贊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尹炳國; 專門委員 尹炳國입니다.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贊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家庭福祉局長의 제안설명과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局長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님 질의하시죠.

○朴時河 委員; 朴時河입니다.

1,000원이 인상되었는데 이 1,000원을 인상했을 경우에 연간 얼마 정도가 징수가 되나요?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저희가 지금 현재는 3개의 여성발전센터에서 1년에 한 3번 정도 수강생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따지면 많습디다. 1,000원씩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서부발전센터가 문을 연다고 가정을 하면 연간 7,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에 추가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인원은 산출을 해서 별도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委員長 朴贊秀; 朴德基 委員님 질의하시죠.

○朴德基 委員; 朴德基 委員입니다.

여성발전센터로 이름을 바꾼 지가 몇 개월 되었죠?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96년에 바꾸었으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朴德基 委員; 그래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있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적에는 모든 물가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는데 따라서 1,000원 정도 올리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인데 아까 말씀처럼 저소득층, 특히 모자가정이라든지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은 돈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 극소수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체육진흥이라든지 각 市에서 해서 區廳에서 가령 배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하는데도 한달에 얼마씩 내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성발전센터에서 이 가격을 올릴 적에 여타 사실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어떠한 시민체육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여자분들이 멀어도 가서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그러는데 과연 1,000원씩 올린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럴 때 꼭 이렇게 올려야 되는가, 또 이렇게 할 경우에 가령 구민체육관에 몇 년 전부터 내려오던 탁구 배우는데 한달에 7,000원씩이다 그러면 그것도 올려야 할 것이고 덩달아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1,000원이라도 이런 상황하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여성발전, 또 앞으로 여성플라자도 있고 모든 복지정책으로의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중점적으로 그것을 전부 홍보활동을 하면서 이런 때에 1,000원씩 올려야 하는가, 저는 우리가 어려워서 하더라도 7,000만원의 수입을 더 올릴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년으로 미루어서 여성발전센터가 한 1년 지난 다음에 정말 많이 나가서 못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올려야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복지분야에 다른 여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委員님 말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여성발전센터가 사실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민간에서 이러한 유사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공공에서 꼭 이렇게 말아서 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한 저희의 변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좀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

한 입장에서 저희도 이것을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센터가 95년도 이전에는 수강료를 3,000원 밖에 안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1차 인상을 해서 7,000원으로 배 이상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때 배 이상을 올리면서도 염려를 했던 부분이 똑같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수강료를 배 이상 올려야 될 것이냐, 이것이 서민생활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똑같이 하면서 올렸었던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하고 또 저희가 교육적인 면하고 효과면하고 서로 대비를 해서 볼 때 저희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市·道別로 조사를 죽 해 봤는데 仁川廣域市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도 더 많은 1인 월 1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또 大邱도 교육수강료 같은 경우에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市쪽에서 볼 때 서울시가 재정자립도도 높고 하니까 더 싸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겠지만 수강을 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애착심이 돈을 조금 내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중간에 중도포기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심리적으로 볼 때 그 돈 7,000원 낸 것 별도의 조그마한 사정이 생기면 포기한다 이런 반대적인 입장도 있고요. 또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려도 仁川이나 大邱廣域市보다는 그래도 2,000원이 싸거든요. 그래서 또 몇 년 후에 갑자기 배 이상 올리는 것보다는 소폭으로 이렇게 물가 상승지분에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올려가는 것이, 사실 저희도 條例를 개정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습니

다만 그렇게 올려가는 것이 그분들한테 한꺼번에 많은 부담을 안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이러한 改正案을 내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 市에서도 3,000원 플러스해서 1만원으로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條例規則審議委員會, 物價審議委員會 이런 쪽에서 심의를 거치면서 아까 專門委員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市가 저소득 시민들과 밀접한 수강료를 仁川廣域市와 똑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이번에 소폭 올리고 또 다음 단계에 소폭 올려서 충격을 완화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委員님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1,000원 올리는 것은 저희가 서부여성발전센터를 개관하면서 수영장 요금 때문에 어차피 이 條例를 개정해야 됩니다. 신설되는 수영장의 요금을 책정해서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개정할 때 소폭 올려 주시면 나중에 충격이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朴德基 委員; 우리가 지금까지 복지와 관련해서는 좋은 일이라서 반대한 것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염려가 됩니다.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수강료는 얼마씩입니까?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수강료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월 5만 2,000원, 서울교육문화회관이 월 6만 9,000원, YWCA가 월 4만 8,000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서부여성발전센터의 4만원은 그런 수준보다는 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朴德基 委員; 지금 局長님 말씀은 한꺼번에 배 이상 올리는



것보다는 소폭으로 1,000원씩이라도 올려서 밸런스를 맞췄으면 한다는 얘기인데, 仁川이 1만원 한다고 하지만 우리 서울이 7,000원 한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설득력이 없고, 제가 볼 때 수영 수강료 4만원은 반대할 것은 아니고 그대로 4만원으로 하되, 다른 것은 여성들이 매우 좋아 하더라고요. 심지어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접수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7,000원 한다고 안오고 8,000원 한다고 오고 돈이 아까워서 이것은 너무하다 이런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은 수영 수강료만 4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한 1년 후에, 우리가 앞으로 얼마든지 회의를 하니깐 1년 후에 그때 가서 8,500원으로 하든 9,000원으로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엔 올려 놓고 또 올렸다면, 그 전에는 3,000원씩이라고 거저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委員長 朴贊秀; 수고하셨습니다.

金箕英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箕英 委員; 金箕英 委員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은 거의가 서민들입니다. 특히 서울市에서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지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때에 수강료 1,000원 인상안에 대해서 本委員은 반대합니다.

서울市에서는 한편으로 여성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필 이때 저소득층 여성들과 밀접한 수강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여성복지정책에 위배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데 局長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 검토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수강료는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4만원안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가 서민층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局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저희가 지금 改正條例案을 낸 것이 지난 95년 1월에 인상을 했고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이것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9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올린 것이 아니고 2년이라는 기간을 두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1,000원의 인상폭이 저희한테는 별게 아닐지라도 서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된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다른 물가가 많이 뛰었고, 또 나름대로 2년 동안 소득향상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해서 이 인상폭의 결정을 여러 委員들의 의견을 듣고 소폭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이번 기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부여성발전센터가 개원하면서 條例를 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지 이것만 올리기 위해서 내년에 다시 條例를 개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8,000원으로 시행이 되면 그 다음에 2년 후인 2000년에나 한 번 거론할 수 있는 2년 간격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箕英 委員; 그러면 局長께서 福祉政策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복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고, 여기를 이용하는 주부들 가운데 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 8,000원 조차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저희가 면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부담을 하고 교육을 받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든 몇몇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金箕英 委員; 제가 여성발전센터를 가끔 방문해서 수강하는 것도 보고 하는데 참으로 열심히들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매우 어려워져 가고 있는 사회상황에서 이분들의 배우려는 의욕이 대단한데, 거기 보면 부유층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거의가 다 서민들입니다. 이 서민들에 대한 여성복지정책을 위해서 우리 局長께서 擔當局長으로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원 더 받으면 1년 수입이 얼마 늘어난다고 했지요?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약 7,000만원 정도 됩니다.

○金箕英 委員; 다른데 쓰는것 절약하고 이것은 올리지 맙시다. 수영을 할 정도면 그래도 중산층입니다. 그러므로 수영수강료 4만원은 그대로 하고 여타 부분은, 1,000원 올려서 추가로 발생하는 7,000만원의 수입을 복지정책에 쓴다는 것인데, 그것 하지 맙시다. 어떻습니까?

○委員長 朴贊秀; 洪月杓 委員님 질의해 주시죠.

○洪月杓 委員; 洪月杓 委員입니다.

전에 本 委員會에서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本委員의 기억으로는 많은 委員님들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좋은 시설들이 100% 가동이 안 된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저소득층만 상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저소득층은 거기 와서 그것 배울 한가한 시간이 없고 당장 급하니까 일터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여성발전을 위한 센터를 만들어 놓고 되도록이면 어떤 계층의 여성이 됐든 그것이 모두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도 가격이 낮고, 그렇다면 아까 여러 委員님들이 서울이기 때문에 더 혜택을 주는 입장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는 가급적이면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저소득층의 폭을 넓히고 그대신 이것은 점차적으로 가격을 현실화하면서 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의 시험대로 생각을 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施設長이라든지 아니면 家庭福祉局에서 보다 더 향상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지와 그리고 또 면제대상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 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0원을 인상하는 것은 앞으로 어차피 현실에 맞춰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인 방향을 위해서 이번에 1,000원을 인상해서 운영을 해 보고, 또 그에 따라서 시설이 가동되는 것에 대하여 종전에 운영한 것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1,000원을 올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여성발전센터에 수영장이 신설되는데, 여기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木洞靑少年會館에 수영장이 개장될 당시 주부들이 밤을 새워가며 기다려서 표를 타야 수강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수영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 방향에 굉장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혹시 가능하다면 다른 발전센터에도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여기에 첨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贊秀; 局長 답변을 들으시려는 것은 아니십니까?

○洪月杓 委員; 네, 이 改正條例案에 찬성을 하나 이리이러한 조건이 같이 따라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저희가 이번 98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발전센터 강사들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도 조금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하고 과목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교과목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필요없는 과목은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과목을 개발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洪委員님이 말씀하신 수영장은 사실 自立度를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수영장 수입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기존 여성발전센터들은 시설 여건상 수영장을 개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복지관에는 그런 기능을 꼭 넣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설계 등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贊秀; 李昌根 委員님 질의하시지요.

○李昌根 委員; 李昌根입니다.

우선 여성발전센터의 제목하고 또 지금 사용료 올리는 것 하고 또 여성들의 관계 이렇게 해 보니까 여성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주어서 여성을 발전시키지 못할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선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 문화수준이 높은 나라,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福祉豫算이 많아야 됩니다. 개인 보고 부담 많이 해서 운영 잘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獨裁國家에서나 그런 것 하는 것이지, 진정 시민을 아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려면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사용자 부담을 적게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또 여기 타이틀 여성발전센터의 그것 하고도 같이 귀결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강료가 현실적으로 7,000원에서 8,000원 되는 것이 현실 물가나 다른 것에 비추어서 저는 비싸다고는 안 봅니다. 오히려 적다는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여성발전센터, 여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복지사업으로서는 우리가 재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委員님 말씀은 저희가 여성발전센터로 이름을 개명을 한 것이 전에는 아시겠지만 李委員님도 강의나와 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婦女福祉館이었습니다. 사실 복지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받으면 이 시대에 와서는 너무 여성들에 대한 복지쪽만 할 것이 아니고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을 해서 사회에 참여를 하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서의 기능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름을 개명을 해서 여성발전센터라고 했는데, 여성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많은 복지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적으로 그 동안에는 2개밖에 없던 것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여성발전센터를 시설도 늘리고 프로그램도 조금더 다양화하고 옛날에 기술을 배워서 꼭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이제는 주부들이 자기 생활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변형을 시키고 해서 다각적으로 프로그램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부들이 1,000원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여성발전센터를 이용을 못할 정도의 그런 저소득층이 과연 여성발전센터에 몇 %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가 다 면제대상으로 해서 한 푼도 수강료 안내고 올 수 있게 했고, 또 지금 민간이라든가 다른 복지파트 쪽에서 하고 있는 데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지 저희 여성발전센터의 수강료가 너무 균형이 맞지 않고 저렴하다고 하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복지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강사의 질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을 예산만 들여서 하라고 하시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자 부담을 어느 정도는 발맞추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0원 정도 올리는 것은 여성들의 발전을 저해한다거나 그렇게 치명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朴贊秀; 林靜枝 委員 질의하시죠.

○林靜枝 委員; 林靜枝 委員입니다.

수강료를 500원, 7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사 월급이 현재는 얼마이고 1,000원을 더 올리면 얼마로 책정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을 받는다는가 생활문화교육을 받는데 수

강료 말고 다른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얼마나 드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1세기에 여성의 생활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와 지원을 아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강료를 올린 기간이 1년밖에 안 되었고 차라리 수영장 사용비를 더 올릴 망정 이런 수강료는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리더라도 2000년 이후에나 올리는 것이 어떨지 생각하는데 局長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林委員님께서 말씀하신 1,000원을 산정한 근거를 확실히 대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것은 확실한 것은 없고 仁川이라든가 각 市·道에 1일 수강료를 죽 조사를 한 결과 1만원이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 사실은 저희가 1만원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00원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기술교육이 1일에 3시간씩 해서 주 5일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20일 동안 3시간씩이까 60시간 정도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3,000원이라고 해도 굉장히 적은, 시간당 50원 올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1,000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1,000원의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사 봉급은 얼마나 올랐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공무원 교사가기 때문에 이것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저희가 별정직 공무원들의 정원을 동결을 하



고 훈련교사가 결원이 될 경우에는 그 자리를 외래강사를 채용을 해서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외래강사들을 좋은 분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97년에는 외래강사료가 1인당 1만 1,000원이었던 것을 98년에는 1만 5,000원으로 시간당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 이외에 어떤 다른 부담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재료비는 본인들이 준비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돈을 부담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각자 미리 내일 시간에 뭐를 한다고 하면 그것에 필요한 재료들을 각자 준비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의 별도 부담은 없습니다.

○林靜枝 委員; 아니, 재료를 준비해 오려면 그 부담이 있죠.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것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돈을 받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林靜枝 委員;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수강료 외에 다른 비용도 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정책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현실화한다, 어쩐다,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한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 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냥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 성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얼마를 기본적으로 조금 받는다 이런 차원이라면 구태여 지금 올리는 것보다 2000년도에 가서 배로 올릴 망정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贊秀; 朴德基 委員님 질의하시죠.

○朴德基 委員; 林靜枝 委員님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이래요.

왜냐 하면 수영 수강료 신설 4만원을 비싸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저소득층은 넘은 차원이고 연령으로 봐서 아주 연세많은 분도 아니고 한 20대 후반부터 30대, 40대 사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아까 林靜枝委員님 말씀처럼 이것을 다른 데 5만원 받으니까 4만 5,000원 받겠다, 그러면 신설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싸다고 하는데 지금 보통 기술교육이나 생활문화 수강료를 7,000원 하는데 이것이 한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4개월에 끝나는 것도 있는데 편의상 4개월 것을 다 달이 7,000원씩 받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받아요. 그러면 4개월치를 한꺼번에 받는다고 하면 7,000원씩이면 2만 8,000원이거든요. 2만 8,000원하고 8,000원 곱하기 4는 3만 2,000원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가 시민복지 5개년계획으로 홍보를 하고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제일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수영 수강료는 어차피 넣는 것이니까 이것 넣는 김에 차제에 이것도 1,000원씩 붙이자 하는 그런 감을 줘서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남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구태여 지금 하느냐, 지금 하면 98년부터 할 것이다 그러는데 내년 이맘 때 하면 99년도나 2000년대에 해도 부족한 것은 전부 市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불용액 남는 것도 있고 그런 데에서 돌려서라도 이번만은 안 올렸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달씩 받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몇 달씩 받습니다. 3개월에 7,000원씩 2

만 1,000원 내려고 하면 7,000원 내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어렵죠. 그러나 2만 4,000원이다 하면 또 달라져요, 한꺼번에 3,000원을 보태야 하니까. 다달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다달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朴贊秀; 朴南植 委員님 질의하시죠.

○朴南植 委員; 朴南植 委員입니다.

지금 同僚委員들이 거의가 다 인상을 불허하는 것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本委員도 동감을 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민이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서울시민으로서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복지 5개년계획이 바로 그런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局長께서는 자꾸 他 廣域市·道를 비교해서 다른 데에서는 1만원씩 받는데 우리가 굳이 적게 받아서야 되겠는가 하고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本委員 생각으로는 실은 살기 좋은 복지 서울을 만들려면 2002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1인 수강료가 7,000원씩 되어 있고 보육료 5,000원 하는 것도 아예 안 받고도 저소득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서울시가 되어야지 여기에다 꼭 1,000원씩을 더 올려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가 우리 局長님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내가 묻고 싶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센터의 간부들하고 상의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趙淳 市長의 짓인지 답변해 주세요. 굳이 1,000원씩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고, 지금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우리가 내일모레인가 현장방문을 합니다만 구립 어린이집을 빼 어린이집, 놀이방이 현재 2,736가 서울시에 있는데 이런 데

에서도 만약에 보육료를 1인 월 1,000원씩 올린다고 하면 공공요금이 오르니까 덩달아서 민간차원에서 하는 어린이집도 이 사람들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또 올려달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덩달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同僚委員들이 열심히 올려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 다른 부위에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안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를 우리 局長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기 신설되는 수영 수강료를 아까 金箕英委員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와서 수강료 내고 수영하는 사람은 형편이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 4만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나 신설하시고 나머지는 종전 사용료대로 할 것을 2002년, 내년, 내후년에 가서 올리겠다는 이런 발상을 가져서는 안 되겠고 他 廣域市에서 1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우리 한국의 중심지인 서울에서부터 복지가 향상되어야 되겠는데 여기서 뭔가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종전 그대로 해 주실 것을 本委員은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贊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제가 우선 한 가지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朴贊秀; 무슨 답변을 해요?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委員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해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수강료를 올리는 발상은 97년도에.....

○委員長 朴贊秀; 됐어요.

文八卦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文八卦 委員; 文八卦 委員입니다.

여기에서 기술교육을 수강하는 분들이 몇 달 동안 수강하면 취업을 알선해 주니까?

○家庭福祉局長 金愛良;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알선을 해서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文八卦 委員; 그리고 많은 委員들이 수영 수강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주로 3·40대 이하 주부들이 수영을 하러 다녔는데 우리 男子委員님들은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를 거예요. 지금 60세가 넘어도 몸매 가꾸고 비대한 살을 빼겠다고 수영장을 다니거든요. 여기 나가는 분들은 전부 저소득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 되는 분들입니다.

지금 다른 委員님들은 수영장이나 모든 것을 서민층이 가는 것으로 보니까 1,000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약간 끼가 있고 재력이 좀 있는 여성들이 가지 진짜 서민은 못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委員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贊秀; 여러 委員님들의 의견이 매우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委員님들의 意見調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4시 22분입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停會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22分 會議中止)

(16時 45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贊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停會中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기에 朴南植 委員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朴南植 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南植 委員; 朴南植 委員입니다.

기술교육 및 생활문화, 보육료 수강료는 현행대로 하고 수영 수강료는 改正案대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贊秀; 委員 여러분, 朴南植 委員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朴南植 委員의 수정동의안은 正式案件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朴南植 委員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委員 여러분, 그리고 執行部 關係官 여러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議會 제97회 臨時會中 제5차 保健社會委員會 會議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4시에 노인복지시설 관련 도시계획시설 해제청원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散會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48分 散會)

---

○出席委員

朴贊秀 朴德基 張壽完 洪月杓  
金箕英 朴時河 劉俊相 李昌根  
洪承采 朴南植 文八卦 林靜枝  
文龍子

○專門委員

尹炳國

○出席公務員

家庭福祉局長 金愛良